

<h1 style="margin: 0;">태평양주보</h1> <h2 style="margin: 0;">KOREAN PACIFIC WEEKLY</h2>			
발행인	동시외준장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남	President	Chung Kar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료	1770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 10월 12일 금요일	Issue No.	1770
		Date	Nov. 21, 1969: Fri.

미, 일 공동성명 발표

일본정책에 따르는 오끼나와 변화 실현 누슨 대통령이 확약

(워싱턴 11월 21일 밤, 에이피) 사또.닉슨 회담은 21일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되어 동 11시 8분 종료되었다. 이후 사또.닉슨 회담을 사산 일.미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다.

- 공동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사또수상, 닉슨 대통령은 입법부의 필요한 수속을 걸치고 구체적인 것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1972년 중에 오끼나와의 반환을 달성하도록, 그의 협의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수상은 오끼나와 반환 후의 오끼나와의 극지방위의 책무를 일본 자체의 방위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심중히 이를 취급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2. 사또수상은 핵병기에 대한 일본 국민의 특수한 감정과 이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은 깊은 이해를 표시하고, 일미 안보조약의 사전 협의제도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해치지 않고, 오끼나와의 반환을 일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도록 실시할 것을 수상에 확언하였다.

미군사기지 존속을 확인

일본 무역제한 철폐에 노력

(워싱턴 11월 21일 밤, 에이피) 일미 공동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72년 내에 오끼나와의 시정권을 일본에 반환한다. 미국은 일본.미국 양국의 안전보장 때문에 필요한 군사기지는 유지한다.
 1. 반환은 핵병기의 전면사용금지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이것은 일.미 안전보장조약에 의한 사전 협의제라는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의 안전보장과 대만해협의 평화유지는 일본 자체의 안전보장에 없어서 안 될 것이다.
 1. 사또수상과 닉슨 대통령은 오끼나와 반환 이전에 비에트남 전쟁이 종결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반환시에 비에트남 화명이 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양국은 충분한 협의하고,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기회를 남비에트남 국민에 보장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형식으로 반환이 행하여지도록 한다.

(제 1 편으로부터 계속)

1. 일본정부는 일본의 무역, 자본의 자유화를 급속히 진전시킬 의향이다. 또 71년까지 광범위의 품목에 걸친 장존수입제한을 철폐할 의향이다.

쌀방이 양보

약반년만에 걸쳐, 동경. 와싱톤간에서 계속된 오기나 학원 워크숍의 최대의 초점은 쌀과 발전의 두걸을 사모도하는 일. 미간의 의견조율이었는데, 이 회담에서는 발전년에서 일본이 양보하고, 핵에서는 미국이 양보한 형식으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정부측에의 학법, 핵에 대해서는 19일의 수뇌회담에서 닉슨대통령은 (1) 나이지리아. 튀르키예의 핵탄두는 이미 오기나와로부터 철폐되었다. (2) 웨이스비도 현행시가지에 철폐될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의해서 일본의 현행시 태입시하라는 요구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서는 이것을 명시명기하는것은 미국측이 강력하게 곤란하다는것을 표시하였기때문에, "핵입는" 의 표현은 추상적인것이 된다.

의론 거리

이중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핵이나 사전협약이 나온것으로 미국으로보면 장래핵을 갖으려오는것이 필요할때에는 사전협약에 내전다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할수있는 미묘한 개소이며, 의론을 볼르게 될것이다.

인류가 다시 달면에 착륙 아폴로 12호 완전한 강하

(유스는 11월 19일 밤, 에이피) 인류 두번째의 달착륙을 목적으로하는 아폴로 12호의 달착륙선 "인드레밋"은 미동부표준시간 19일 오전 11시 54분 29초(하와이시간 18일 오후 8시 54분 29초) "폭우의 대양"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콘트롤탑과 비행사는 달면에 3시간 반 체재하고, 예정대로가면 2일간에 걸쳐서 최저 7시간의 이 달면에서의 과학조사활동을 하고, 본격적으로 달 과학을 실시한다.

극히 정확한 착륙

"인드레밋"의 착륙지점을 "폭우의 대양"의 중간의 란스버그. 트레이러의 남동의 편편한 부분으로, 이 지점은 1967년 4월에 무인탐사기 서베이아 3호가 착륙한 적은 트레이러의 옆, 이 착륙목표의 트레이러의 변두리에서 단지 20척이라는곳에 "인드레밋"은 완전한 착륙을 하였다고 해도 과하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단지 600척의 장소에 서베이아 3호가 있다.

아폴로 12호 키도에 올라. 24일에 착수

(유스는 우주중앙초 21일 밤, 에이피) 아폴로 12호는 미동부표준시간 21일 오후 3시 47분(하와이시간 오전 10시 49분), 달주위 45회선 회후에 달의 이면에서 2분간 엔진을 분사하고 주회궤도를 떠나, 지구에 향하는 궤도에 랐다. 3일간 우주공간을 비행한후, 미동부표준시간 24일 오후 3시 57분(하와이시간 오전 10시 57분), 중부태평양에 착수할 예정이다. 20일, 달착륙선 인드레밋과 사령선 양기. 크리저의 단킹후, 사령선으로부터 인드레밋을 대치고, 오후 5시 17분(하와이시간 오후 1시 17분), 지상으로 누려의 지령으로 인드레밋을 월면에 격돌시켰다. 이것으로 일종의 인공지진을 일으켜, 달의 내부구조를 찾는 다것과, 장래궤도상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첫 시험이다. 인드레밋의 격돌지점은, 당초의 예정지점보다 동남에 62.4키로 더러졌다. 월면에 격돌할때의 속도는 초속 1.7키로로, 그때의 충격력은 리.엔.리 화산 765키로 상당한다고 추정되고있다. 또 격돌의 결과 월면에는 폭 6미터, 길이 12미터, 깊이 40 내지 60센치의 인공 "트레이러"가 생긴것으로 보인다.



해인즈워스 임명을 상원 드디어 거부 닉슨대통령 유감의 뜻을 표명

(워싱턴 11월 21일 밤, 에이피) 미국국회 상원은 21일, 크래머스. 해인즈워스 제 4연방순회재판소 수석판사의 연방최고판사의 지명특인을 찬성 45, 반대 55표로 부결하였다. 대통령의 최고재판소 판사지명이 부결된것은 1930년의 존. 파카판사의 예이래 처음으로, 취임을 시킬려고 노력하고있는 닉슨대통령으로서 그의 권한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할수있다.

해인즈워스연방판사는 파커의 중판사의 판례가 반노동조합, 인종분리의 모순에 서있다고하여, 노동조합지도부와 농민조합등의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대의 소리가 일어나있었다. 또 윤리문제와 재정규범의 면에서 배타를 일코인다는 비난도 있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각의원의 태도는 찬성 45, 반대 43으로, 단 12명의 의원의 태도는 명백치않았다. 투표에서는 이중 홀부타이르민주당의 원을 제외하고 권원 반대에 돌았다. 또 닷드민주당의원은 위원회에서는 지명취임을 지지하였는데, 본투표에서는 반대에 돌았다.

남비에트남의 병력증강 진전

(사이공 11월 21일 밤, 에이피) 남비에트남을 6일간 방문중이었던 팻카드국방차관은, 단 동남아세아 제국방문에 출발하기전에 공항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요지다음과같이 말하였다.

1. 닉슨대통령의 비에트남 회평계획은 진행중이며, 현시점에서 적의 전우행위의 확대도 위험하게 될 우려는 없다.

1. 남비에트남군의 병력증강은 계속 진전되고있으며, 닉슨대통령은 남비에트남군에 의한 미군의 대지방향을 계속유지할수가 있을것이다.

1. 남비에트남군의 무기, 장비의 개선, 근대화계획은 현재 사실상 완료되고있으며, 이후에는 다만 장기간에 걸친 요청, 특히 공군을 남기는것 뿐이다.

20일부터 21일에 걸쳐서, 부. 두란., 득. 탕투 특수부대원지 주변에서 남북양비에트남군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파리 회담 수석대표 랫지씨 사임

(워싱턴 11월 20일 밤, 에이피) 백악관은 20일, 파리 회담 회평 회담의 랫지수석, 윌슈차석양대표가 사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랫지수석대표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하비부대표가 신대표의 임명까지 수석대리를 한다. 랫지, 윌슈차석대표의 사임은 12월 8일 공식으로 발령된다.

미국인은 닉슨 지지. 랫지씨 발언

(파리 11월 20일 밤, 에이피) 20일에 열린 제 43회 파리 회담 회평 회담본 회의에서, 남비에트남 임시혁명 정부의 빈수석대표는, "68년의 관. 가이성 애 있어서의 미군의 대량학살은, 미국과 가이라이정부의 법하고있는 몇천, 몇만의 범죄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서 랫지 미수석대표는 "미국인의 대다수는 닉슨대통령의 비에트남 회평에의 노력을 지지하고있다. 미국은 북비에트남이 요구하는 어떠한 상호철폐 회평에도 마음을 러러노코, 고요한다" 라고 발언하였다.

소련의 거대한 로켓트 폭발 달계 획치연

(론론 11월19일밤, 공동) 영국민간레테비존 회사의 아이.리.비방송은 17일, 10월 소련이 발사한 세계의 소유즈우주선이 구데우주소 건설에 실패하였다는것은, 스테이손의 주요부분을 발사할 예정이었던 거대한 로켓트가 발사대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가달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때문에 소련의 달계 획은 크게 지체될것이라고. 동방승은 말하고, 동방승에의하면, 스테이손주요부분을 실패한 로켓트가 폭발하였을 미국의 스파이 위성애의해서 시집을 지켰다고한다. 이라켓트는 미국의 새형5형보다 강력하여, 추력을 4천5백톤 이상이라고 전해진다. 동라켓트는 달에 인간을 보내는 운반수단이었는데, 발사의 실패로 소련의 달계 획은 지체될것이라고한다.

소련등을 통해서 미국 북비에트남과 접촉

(워싱은 11월20일밤, 에이피) 미국부성대변인은 19일, "미국은 비에트남정책에 관한 니슨대통령의 연설이래, 비에트남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왔는데, 이들의 접촉은 모두가 제3국을 통해서이다" 라고 말하였다. 동시에는 또 제3국중의 하나는 소련이라는것을 명백히하였다. 라자스극무장관은 전에 "미국은 오.지.민대통령의 죽음후에도 북비에트남과 접촉하여 왔다" 라고 발언하였는데, 버치씨의 설명은 이 라자스발언을 보충하는것이다.

미.소 헬싱키 군축교섭. 우호적 시각

(헬싱키 11월18일밤 에이피) 미.소전략병기제한교섭의 예비 회담은 18일, 헬싱키의 미대사관에서 약한시간반에 걸쳐서 비공식하에 거행되었다. 예비 회담은 비공개대도 금주수주간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회담후 스미스대표는 제2회회담의 예정일대해서 "곧 한다" 라고만 말하였다. 단 회담관계자에의하면 20일이 될모양이다. 세미요노르 소련대표는 발언하지안했다. 제1회교섭이 어디까지 발전하였는지는 아직 명백치안데교섭은 공식으로 수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핀랜드의 겐코넨대통령, 갈야타이넨의상애의한 연회가 연일 개최되어, 19일에는 역사상 최초의 "미.소대표단공동주최 파티"가 열린다. 미.소대표단은 제1회교섭에대해서 17일밤에 스미스대표는 "조은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세미요노르대표는 "대담히 조웠다" 라고 말하였다.

김세원총영사 환송회 대성황

김세원총영사(한국총영사)가 비에트남공사로 부임하는 날이 촉박해와, 지난 11월 21일에는 하와이안인 연합회주최로 김세원씨 송별 환송회가 와이키키의 일촌.하와이안.빌리지의 코탈.볼.룸에서 저녁 6시부터 성대히 거행되었다. 8년동안 심이 국친하게 되었던 한인사회인사와 자절을 고하는 김세원씨의 연설은 참석한 인사들에게 깊은 감명을주었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호소하고 한인자체가 한인이라는 자긍심을가짐으로서 단단한족파 썩겨서 삼수있다는 진지한 훈시는 모두의 공명을 받았다. 약140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 환송회는 6시부터 캣.레일로 7시반에 미미교육사 박태이학회 개최기도로 시작되어, 맛있는 9 코스.중국음식이잇은후, 사회 메뉴얼 권씨의 인사소개, 동지회 를 대표하여 전순희 김여사께서 김세원총영사와 부인께 메이의 진정이잇었고, 또 모리언.유니 버씨리.크림에서 선물진정, 한인연합회회장 앤드루.리씨가 김총영사의 큰 공헌을 칭찬하는 포창목판의 진정이잇었고, 이어 김영사의 송별사가잇었다. 모든 행사는 9시45분에 끝내고 이날 행사는 큰 성공리에 종막하였다. 이 환송회회장은 김창원씨였다.

김세원총영사는 오는 11월25일 (화요일) 11시30분 (오전) 일본항공기편으로 한국을향해출발, 한국에서 2, 3일 유식후, 비에트남의 부임지도 향할예정이라고한다.

